

작은 꽃

주요 날짜:

- 4 월 1 일
Soup Kitchen 봉사
- 4 월 8 일
예수부활 대축일
성경모임
- 4 월 23 일
아시시의 복자
에지디오 수도자
(1 회) 기념
- 4 월 22 일
월례회
- 4 월 25 일
성 마르코 복음 사가
축일
- 4 월 23 일
복자 루케치오
(재속 3 회) 기념

다음쪽:

한 걸음씩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감사하며

최 필립 가타리나, SFO

2004 년 9 월 첫 소식지부터 쓰기 시작한 형제들의 글, 이번달 형제회의 최고 참이신 가타리나 자매님의 글로 모든 형제들의 글을 적어도 한번씩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된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조금 있으면 내 나이 80 이다. 메주고리에와 터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바로 한국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왔다. 얼마 전에는 오레곤 포트랜드로 태어난 증손녀를 보고왔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과 행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16 년전 미국에 와 바로 성당 앞에 살게 된 나는 그 동안 매일 축복받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성당을 몇 바퀴도는 아침 운동부터 시작하여 16 년 동안 아침미사를 드릴 수 있었으니! 물론 미사는 영어로 드리나 나는 한글로 번역된 매일 미사책으로 대신한다. 물론 신자들 모두가 미국인들이지만 이제 모두 손짓 발짓으로 통하는 친구가 되어 있다. 아들 내외는 요즘 20 여년전 조용하고 오렌지 꽃 향기 풍기던 이웃이 이제 시내 중심가로 변하여 복잡해졌다고 공기 좋고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성당과 거리가 멀어져 매일 미사에 참석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요일 만큼은 아침미사와 레지오 모임에 갈 수 있도록 머느리와 계획을 해 두었다. 다행히 오랜 세월 다니고 있는 미국성당이 아들 내외 사업장으로 가는 길에 있어 이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 주일엔 물론 아들 내외와 한국성당에 간다. 영성이 맑으신 반 라파엘 신부님 강론을 통해 우리 식구 모두는 삶의 옳은 지혜를 얻는다. 이제 거의 우리의 성당 건물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에 정말 또한 감사한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되이 열심히 사는 한 작은 프란치스코인이 되기를 매일

기도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는 않나 늘 살피며 살아가겠다고 또 다짐해 본다. 끝으로 그 동안 ride 로 많은 도움 주신 김 베로니카 자매님을 비롯하여 프란치스코회 자매님,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를 드린다.

월례회



모범생들

지난달 25 일 월례회에 26 명의 형제들이 반가운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Mark 수사님께서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시편 42 장)이란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그리는 ‘당신’의 대상이 누군인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스스로 없는 나눔을 가졌습니다. 수사님 시간 후 다과와 휴식 갖고, 각 반별 (Orientation, 입회, 영속적 양성) 양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성 시간 후에 다시 모여 공지사항의 전달과 그에 따른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난 달 평의회 결정 사항으로 시작된 양성의 한 부분인 매달 회칙, 회헌 2 쪽 필사 숙제를 검사한 결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성실히 숙제를 해오셨습니다.

성경모임 - 예레미야

저는 이 성스러운 사순절에 예레미야 예언자와 마주 앉는 기쁨과 영예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생애와 말씀을 통하여 인류역사상 가장 특출한 분 중의 한 분이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an
@yahoo.com

로서 모든이의 존경과 흠숭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의로우신 하느님의 분신 그 자체였으니까요. 예언자중의 예언자, 성인중의 성인, 의인중의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싶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사제 힐키야의 아들로써 예루살렘 인근 성읍 아나돗에서 태어나 요시아왕 13년에 젊은 나이로 소명을 받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빌론으로부터 패망되는 마지막 왕 치드키야까지 다섯 왕들의 통치를 거치면서 약 40여년간 온갖 수모와 투옥을 거듭하면서 사력을 다하여 예언 활동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부패하여 우상숭배가 성행하였고 악행이 극심하였습니다. 야훼의 성전에 이교제단을 만들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가 하면 야훼 신봉자를 박해까지 하였습니다. 한 때 요시아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백성의 마음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모기도 싸움 초판에 전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죽음이 앗시리아 신의 벌이라 여겨 한층 더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이 무렵 유다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변화가 일어 에집트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앗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빌론 제국이 세력이 커져 주전 605년에 앗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비롯한 중동 아시아 일대를 점령합니다. 유다의 지도층은 에집트파와 바빌론파로 분열되었고, 바빌론은 에집트를 견제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마침내 성전을 불사르고 성을 초토화하고, 천민과 불구자만 남겨 두고 왕을 비롯 모든 백성을 포로로 삼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암흑의 현실 속에서 새 언약의 환시를 보고 또 다른 차



공부도 다정히

원의 희망을 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 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1:33-34) 그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회개가 없는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깨달아 인간의 개인적인 인격에 큰 관심을 둡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 예레미야는 바빌론군으로부터 정중한 대우를 받지만 바빌론에 가지 않고 유다에 남은 가난한 천민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후 에집트 추종자들에 의해 강제로 에집트로 끌려갔고 거기서도 예언자로 활동하다가 끝내 백성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탈무드의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 생애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철저히 헌신했지만 동족들로부터 증오와 고난과 버림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참으로 '슬픔의 예언자요, 마음이 부서진 예언자'였습니다. 최후까지 고통스러운 삶의 길을 걸었던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53장의 '고통받는 하느님의 종'으로써,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수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 정리]

교회의 공식기도인 성무일도는 하루의 전 시간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대한 찬미와 그를 통한 인간의 성화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시간에 맞추어 드리던 기도 관습이 초대 교회로 이어진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의 성무일도는 1985년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개정하여 공포하셨습니다. 한인 형제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는 성무일도는 교회의 공식 성무일도가 아닌 발췌본 小 성무일도입니다. 수도자와 성직자가 의무적으로 바치는 교회의 공식 성무일도는 구분하여 '大 성무일도'로 칭하기도 합니다. 지침서에서는 회원들에게 가능한 한 대 성무일도를 바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13 쪽)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8 조는 회원은 '교회가 제정한 형식에 따라 전례기도에 참여'해야 하며, 회헌 14 조 4 항은 '회원과 형제회는 교회의 전례기도의 양식과 예절서의 지침에 유의하며, 특히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을 특전(giving priority)으로 여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형식에 얽매이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목소리와 음률보다는 마음의 일치에 관심을 두어,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성무일도를 바치십시오"(온 형제회에게 보내신 편지 41-42)라는 성인의 권고를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